

# 초대형선박 유치 발목...광양항 중심사업 속도내야

## 2029년 개장 컨테이너자동화부두 '절름발이 개발' 우려 항만기본계획 누락...“북극항로 거점항 여건 조성 시급”

광양항 컨테이너 자동화 부두 개장이 3년여 앞으로 다가왔으나 초대형 선박이 입출항하는 부두 전면항로 중심사업은 계획조차 수립하지 못해 자동화 부두 활성화에 적신호가 켜지고 있다.

18일 여수광양항만공사와 항만업계에 따르면 초대형선박 유치와 항만 경쟁력 제고 등으로 광양항 활성화를 위해 광양항

항만자동화부두 구축사업 (사업비 7846억원, 4000TEU급 3선석·2000TEU급 1선석, 연간 처리능력 136만TEU)이 오는 2029년 상반기 개장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다.

하지만 전면항로의 중심사업은 이뤄지지 않아 초대형 선박 유치 등 물동량 창출과 항만 활성화에 차질이 예상되고 있다.

현재 구축되고 있는 자동화부두는 초대형 선박 (2만4000TEU급) 입출항에 대비해 부두안벽 (3~2단계) 수심은 -18m까지 건설돼 있으나 선박이 들락거리는 길이 7.2km의 부두 전면항로 수심은 -16m로 중심사업이 이뤄지지 않아 대형선박이 자유로이 입출항하기가 어려워 절름발이 개발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전문가들은 1만4000 TEU급 이상 컨테이너선이 만제를 해 자유롭게 입출항하기 위해서는 항로(폭 650m) 수심이 최소 -17m 이상은 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때문에 여수광양항만공사는 지난해부

터 해수부에 현행 -16m의 항로 수심을 -17m로 깊게 하는 부두 전면항로 중심사업을 건의해오고 있으나 아직까지 반영되지 않고 있다.

중심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우선 제4차 항만기본계획 (2021~2030년) 또는 제2차 신항만건설 기본계획 (2025~2045년 변경)에 반영돼야 하고 예비타당성 조사용역, 기본 및 실시설계, 공사 (최소 2년 간) 등이 이뤄져야 하는데 첫 단계인 기본계획에조차 반영이 안돼 논란이 일고 있다.

설령 올해 신항만기본계획 (수정계획)에 반영이 된다 해도 일련의 절차를 감안

하면 완공까지는 최소 6년여가 소요돼 자동화 부두가 개장돼도 선박 입출항 불편으로 대형선 유치와 화물창출에 어려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광양항 자동화부두 구축으로 광양항의 적정처리능력은 현재 272만TEU에서 408만TEU로 늘어나게 돼 화물 창출이 급증한 실정이다. 특히 최근 부상하고 있는 북극항로 거점항만 개발에 따른 여건 조성을 위해서도 중심사업은 광양항의 최대 현안이 되고 있다.

한 터미널 운영사 관계자는 “자동화부두 안벽 수심과 부두항로 수심이 같아야

하는데 부두 전면항로 수심이 낮으면 대형선박 입출항이 지장을 받게 된다”며 “지금도 선사에서 인제 24시간 자유롭게 입출항 할 수 있는나고 물어 오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항만공사 관계자는 “항로중심을 위해서는 우선 신항만건설계획에 반영을 시켜야 하기 때문에 중앙정부에 꾸준히 건의를 해오고 있다”며 “북극항로 거점항을 만들기 위해서도 항로중심사업은 필요하다”고 말했다.

광양=김귀진 기자 kkkjin@gwangnam.co.kr



농협경제지주는 '한국농협 흑미밥'과 '농협100 고칼슘두유'를 대한항공 기내식으로 공급한다.

## 농협, 대한항공 기내식 공급...K-Food 세계화

### 흑미밥·두유 납품...쌀·콩 등 가공식품 활성화

농협경제지주는 '한국농협 흑미밥'과 '농협100 고칼슘두유'를 대한항공 기내식으로 공급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공급은 지난해 10월 '한진·대한항공C&D서비스와 국산농산물 소비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한 이후 약 2개월 만에 거둔 첫 성과다.

3사는 지난해부터 제품 발권을 비롯

해 맛과 안전성 테스트, 전담 물류체계 구축 등 긴밀한 협력을 이어왔다. 이번 공급을 통해 농협은 국산 농산물 가공식품의 우수성을 전 세계 여행객에게 널리 알릴 계획이다.

또한 농협은 올해부터 기내식 공급 품목 확대를 위해 '상품발굴 TF'를 운영하며, 기내식 전용 제품 출시와 패키지 리

뉴얼을 위한 연구개발(R&D)을 추진할 예정이다. 특히 품질이 우수한 국산 쌀 가공제품 공급에 초점을 맞춰 쌀 소비 촉진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박서홍 농협경제 대표이사는 “우리 농산물 쌀과 콩 가공식품을 기내식으로 제공하게 되어 의미가 크다”며 “다양하고 우수한 국산 농산물 가공식품을 지속적으로 개발해 K-Food 세계화와 국산 농산물 소비촉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승훈 기자 photo25@



### 전남농기원, 유기농 녹차 활용 '녹차 밀크티' 개발·기술이전

전남도농업기술원이 보성산 유기농 녹차를 활용한 '녹차 밀크티' 제품을 개발하고, 관련 기술을 민간에 이전했다.

이번에 개발한 녹차 밀크티는 유기농 녹차를 55도에서 저온 추출해 녹차 고유의 선명한 녹색과 풍미를 최대한 유지한 것이 특징이다.

저장 기간에 따른 미생물 수를 분석한 결과, 아무것도 첨가하지 않은 일반 우유와 비교했을 때 녹차 시럽을 첨가한 녹차 밀크티에서 미생물 수가 현저히 낮게 검출돼 저장 안전성도 확인됐다.

또한 녹차를 우린 뒤 시럽 형태로 제조해 우유에 첨가하는 방식으로, 가루녹차를 혼합할 때 발생하는 침전물이 없어 외관과 식감이 한층 깔끔하다.

밀크티는 일반적으로 출자에 우유를 섞은 영국식 차 음료로 알려져 있다.

전남농업기술원 차산업연구소는 전남 보성 유기농 녹차의 맛과 향을 새로운 방식으로 알리기 위해 녹차와 우유를 결합한 'K-밀크티'를 기획·개발했다.

김행만 원장은 “녹차 밀크티 개발을 계기로 유기농 녹차의 가치와 맛을 소비자에게 알리고, 녹차 소비 저변을 확대해 나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현규 기자

## 농촌경제연구원, 22일 '농업 전망 대회' 개최

### 서울 롯데월드서 'K농업·농촌 대전환' 주제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오는 22일 서울 잠실 롯데호텔 월드 크리스탈볼룸에서 'K-농업·농촌 대전환, 세계를 품고 미래를 열다'를 주제로 '농업전망 2026' 대회를 개최한다고 18일 밝혔다.

올해 29회를 맞이한 농업전망 대회는 농업인, 산업계, 학계, 정부와 지자체 농업 담당자들이 한 자리에 모여 한 해 농정을 전망하고 발전 방안을 논의하는 농업 분야 대표 행사다. 자세한 내용은 농업전망 홈페이지 aglook.kr 또는 농업전망.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행사는 농정 방향과 한국 농업·농촌 미래, 올해 농정 이슈, 산업별 이슈와 전망을 주제로 총 3부로 구성된다.

1부에서는 '농정 방향과 한국 농업·농촌 미래'를 주제로 이한주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이 '이재명정부 국정과제와 농업·농촌'에 대해 기초강연을 한다. 김용렬 농업관측센터장이 '2026년 농업 및 농가경제 동향과 전망', 박순연 농림축산식품부 기획조정실장이 '2026년 주요 농정 방향'을 발표한다. 2부에서는 '2026년 농정이슈'를 주제로 K-농식품, 시장 전환을 비롯해 K-농촌, 기회와 장, K-농업, 미래 성장의 3개 분과로 나눠 발표와 토론이 진행된다. 3부는 '산업별 이슈와 전망'에 대해 곡물, 과일·과채·임산물, 채소 등 5개 세션으로 나눠 발표와 질의응답이 진행된다.

나주=조환진 기자 pose007@



농협 전남본부, 고병원성 AI 방역 현장 점검 농협 전남본부는 최근 나주축협과 함께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발생한 나주시를 방문해 방역 상황을 점검하고, 공동방제단 직원들을 격려했다. 이번 방문은 전남지역에서 고병원성 AI 발생이 이어지는 가운데 차단방역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강조하고, 최일선에서 방역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현장 인력들의 노고를 위로하기 위해 마련됐다.

광주광역시 광산구 공고 제2026 - 114호

###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실효 및 도시관리계획 (지구단위계획) 결정 (변경)에 따른 주민열람공고

광주광역시 광산구 일원에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실효를 위한 도시관리계획 (지구단위계획) 결정 (변경)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30조, 같은법 시행령 제22조, 제25조에 따라 의견을 듣고자 사전열람 공고하오니 의견이 있을 경우 열람기간 내 서면으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2026년 1월 15일  
광주광역시 광산구청장

#### 1. 입안사유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 제1항에 따라 고시일로부터 20년이 지난 때까지 도시계획시설 사업이 시행되지 않을 경우 도시계획시설은 자동 실효됨에 따라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중 현시점에서 불합리하게 결정되었거나 집행가능성이 없는 시설을 해제·조정하여 도시계획시설 결정으로 인한 개인의 재산권 침해를 해소하고 토지이용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

#### 2. 열람 및 의견제출 기간: 2026. 1. 15. ~ 2026. 1. 30. (15일간)

#### 3. 열람내용, 장소 및 의견제출 방법

- 열람내용: 광산구 도시관리계획 (지구단위계획) 결정 (변경) 주요내용
- 열람장소: 광주광역시 광산구 도시계획과 (5F)
- 의견제출: 열람기간 내 서면(우편, E-mail, 방문) 제출
  - 우 편: 광주광역시 광산구청 (도시계획과)
  - E-mail: sumcl4@korea.kr

#### 4. 광산구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 (안) 조서: 붙임 1

#### 5. 광산구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 (안) 도면: 계획영략(열람장소에 비치)

#### 6. 도시계획시설 실효에 따른 안내사항: 붙임 2

#### 7.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광주광역시 광산구청 도시계획과 (☎062-960-852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소통코스**

중랑광고솔루션 - 나코스(유)

www.nacos.co.kr NAVER 나코스 검색

● 1004섬 신안 신의도 찰나를 담다!

YouTube

★구글이디기가 있으면 구독하실 수 있습니다

광남일보 TV

구독 · 좋아요 · 알림 설정까지!!

1004 신안 신의도

광남일보 iTV 프로그램

● 호국와 자초의 성지, 전남 두륜산 대동사

● 나주지역 포교의 중심도량 덕륜산 불희사

광고 · 시청문의 062)370-7077